



05

섬에 사는 사람들도, 섬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사업 외

대한민국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KBS의 야생버라이어티 ‘박 2일’의 인기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하다. ‘박 2일’ 촬영팀이 다녀간 곳은 매회 검색순위 1위, 주말에 찾고 싶은 여행지 1위가 되는 등 프로그램의 인기 에 버금가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멤버들의 고생담이 더 진하게 펼쳐지는 섬 여행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단골 메뉴! 지난 6월 방영된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 진도군 관매도의 인기도 심상찮았다. 관매도는 이제까지 ‘박 2일’이 소개한 섬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했다는 평이다. 관매도는 다도 해 해상국립공원 중에서도 절경 중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볼거리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 2일’의 소개이후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은 부쩍 늘어 교통편을 증편하고, 숙박시설을 늘리는 등 진도군과 국립공원 측은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러나 즐거운 비명이다. 관매도와 더불어 진도군의 섬들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섬들과 함께 더 살기좋은 진도로 거듭나기 위한 이들의 노력, 진도군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이야기를 들어보자.



달라진 다도해의 여름

물으로, 도시로, 섬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데 익숙했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섬은 손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고만 있었다. 남아있는 정주민들은 생업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길 바랐다. 그러나 최근 섬이 달라지고 있다! 배가 닿기 쉬워지고 해일과 바람에도 안전하도록 집이 고쳐지고 배수로가 뚫리고 길이 다듬어졌다. 사시사철 이런 저런 연유로 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여름에는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느라 바닷길은 하루 종일 설 틈이 없다. 떠나보내기에 익숙했던 섬이 이제 맞아들이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 서남단에 위치한 진도군의 여러 섬들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맞아들이기에 여념이 없다. 진도군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도서로 관내 45개의 유인도서 중 10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개 유인도서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5,596백만원을 투

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금호도, 모도, 관매도, 상조도, 하조도, 청등도, 맹골도, 죽도 등에 총 6,884백만원 상당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효과는 그 이상이었다.

국립공원과의 연계 협력은 필수

진도군의 경우 도서종합개발 사업 대상도서 33개 중 26개 도서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632,563km²)내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그 곳에 살고 있는 정주민들의 편의시설 하나만 지으려 해도 제한이 따랐다. 개발에 들어가기 전 해당 사업을 공원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간과 인력낭비가 막대했다.

이런 걸림돌을 효율적으로 타개한 것이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사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인 ‘명품마을 조성사업’이 지난 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진도군의 도서개발종합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특성상 산간오지, 도서 등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립공원 내 마을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제1호로 선정된 곳이 바로 진도군 관매도! 섬을 개발하여 살기 좋은 섬을 만들고자 하는 진도군과 국립공원 내 마을을 보호와 동시에 새로운 마을로 변신시키고자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양 측은 상호 연계를



진도군-국립공원 MOU체결

통한 개발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 일원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진도군은 필요한 시설을 적합하게 지어주고 유지·관리·보수를 국립공원 측이 맡는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환경파괴를 줄인 개발이란 이런 것

시행과정에서의 갖가지 협의 과정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립공원 측은 환경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제1호 명품마을 관매도 지정개요 |

2010. 5. 31	명품마을사업계획 공모 시달
2010. 6. 7	진도군 사업부서와 협의
2010. 6. 14	관매도 주민설명회
2010. 6. 15	관매도 1차 현장조사(탐방로, 선상경관 등)
2010. 6. 17 ~ 18	선진지 사례조사(문헌, 현지조사 등)
2010. 6. 21	관매도 2차 현장조사(습지, 자연경관 등)
2010. 6. 25	관매도 주민총회
2010. 6. 29	관매도 주민설명회(주민의견 최종 수렴)
2010. 6. 30	명품마을 공모전 사업계획서 제출
2010. 7. 12	명품마을 공모전 당선마을 선정(10억원 지원확정)
2010. 7. 14	공모전 당선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진도군 업무협의
2010. 7. 15	공단, 마을대표 합동 선진지 시찰
2010. 7. 20	공단본부, 전문가, 진도군 현지 합동조사
2010. 7. 25	마을별 주민 대표 위원회 구성(16명)
2010. 7. 27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2차 주민협의
2010. 7. 29	세부 사업계획 주민동의 확인
2010. 7. 30	진도군과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 업무협약 체결(MOU)
2010.11. 19	공원내 시설물관리 일원화 협정 체결(진도군+공단)

파괴가 덜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설을 짓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가 쉽지 않게 된다. 경험상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진도군은 재료를 혼합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식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양 측이 만족하는 하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개발 사업은 환경파괴를 가져온다는 점은 늘 염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관매도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협력을 통해 이런 염려까지 불식시켰다. 사업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면서 환경과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개발사업에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었다.

한편 지난해 말 진도군 조도면 일대의 20가구 이상 사는 마을과 농경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환경부 국립공원 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또 20가구 미만 마을과 농경지는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되었다. 육상 63km², 해상 569km² 가운데 해제된 육상 면적은 약 6km²로 전체의 10%가 넘는다. 이로써 진도군의 도서개발종합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진도군 수산자원과 이광옥 계장·조경수 담당자

정주민들 우선, 상향식 계획 수립

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지역 공무원들이라 해도 도서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주기반조성이 중심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민들의 어업생산을 돕기 위해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안도로를 정비하거나 주거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먼저



위에서 부터 어류포항, 맹골곶도

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이 섬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관광객 유치는 섬에 사는 정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환경정비, 관광객들의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편 개발 등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정주민들이 섬을 찾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섬 관광이 많아지던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한번 왔다 가면 섬에는 쓰레기들도 넘쳐났었다. 그 뒤처리를 모두 섬사람들과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했다. 지금은 관광지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광지로 섬이 개발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섬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나온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광객 유치로 인해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정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에 대한 이점에 대해 홍보를 지속하면서 이도현상을 막기 위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진도는 계속 업그레이드 중

관매도의 인기와 더불어 2010년도 진행된 도서개발종합사업으로 진도군의 여러 섬들은 한층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진도군의 경우 도서개발에 있어 가장 뒤쳐진 것은 교통편이다. 동남해권에 비해 진도군과 다도해상은 유람선조차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유람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함에도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섬을 왕래하는 교통편은 쾌속선이 아니라 도선(차나 물건을 싣는 배)이다. 그나마 몇 대 되지 않는다. 관매도의 경우 관광객들이 1시간 넘게 배를 타야 한다.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배편을 늘렸지만 아직 부족하다.

| 2010년도 진도군 도서개발종합사업 내역 |

도서명	사 업 명	위 치		단위	사 업 량	2010 계획				비고
		읍 면 등	리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민용자	
20					20건	6,884,000	4,819,000	2,065,000	-	
금호도	가족 휴양의 섬 조성	고군	금호도	건	1	300,000	210,000	90,000	-	완료
모도(익신)	바닷길체험의 섬 조성	익신	모 도	건	1	300,000	210,000	90,000	-	이월
관매도	관매도 접안시설사업	조도	관매도	m	20	500,000	350,000	150,000	-	완료
하조도	다도해 관문 어항 조성	조도	하조도	건	1	300,000	210,000	90,000	-	완료
하조도	웰빙공원	조도	명 지	천㎡	3.3	384,000	269,000	115,000	-	완료
하조도	읍구 관광 항구 조성	조도	읍 구	천㎡	5.0	400,000	280,000	120,000	-	이월
하조도	해안도로정비	조도	육 동	km	2.0	300,000	210,000	90,000	-	완료
하조도	신전행복 미항 조성	조도	신 전	천㎡	5.0	500,000	350,000	150,000	-	완료
상조도	전망의 섬 조성	조도	맹 성	건	1	500,000	350,000	150,000	-	완료
상조도	접안시설	조도	맹 성	m	10	300,000	210,000	90,000	-	완료
상조도	해조류 건조장	조도	당 도	천㎡	3.0	300,000	210,000	90,000	-	완료
눌옥도	눌옥도 어항 정비사업	조도	눌옥도	건	1	300,000	210,000	90,000	-	완료
청등도	청등도 어항 정비사업	조도	청등도	건	1	300,000	210,000	90,000	-	완료
슬 도	슬도항 정비	조도	슬 도	천㎡	3.3	300,000	210,000	90,000	-	완료
맹골도	선착장 접안시설	조도	맹골도	m	20	300,000	210,000	90,000	-	완료
죽도(조도)	돌미역 건조장	조도	죽도(조도)	천㎡	3.3	300,000	210,000	90,000	-	완료
곽 도	선착장 접안시설	조도	곽 도	천㎡	3.3	300,000	210,000	90,000	-	완료
진목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도	진목도	건	1	300,000	210,000	90,000	-	완료
가사도	가사도 낙조의 섬 조성	조도	가사도	건	1	300,000	210,000	90,000	-	완료
가사도	해조류 건조장	조도	가사도	천㎡	5.0	400,000	280,000	120,000	-	완료



청등도



진목



관매도 선착장



곤우선착장



명지 웰빙공원



맹골죽도



늘옥도



하조도 읍구



하조도 맹성리



맹골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늘어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진도군은 이전과는 다른 각오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 서망항과 팽목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리나 시설과 쿠르즈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같은 시설이 활성화되면 관매도권과 하조도권의 개발 전망은 아주 밝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70개의 성장촉진지역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진도군이 효율적인 도서개발종합사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변모했다. 섬에 사는 사람들도, 섬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자는 진도군의 모토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있게 ‘엘컴 투 진도’를 외치는 진도군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섬다운 예쁜 섬, 관매도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이 된 관매도의 가장 큰 매력은 섬 고유의 매력을 잘 보존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돌모, 공돌, 벼락바위, 하늘다리 등 자연이 만들어 놓은 절묘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관매 8경과 흙과 시멘트를 쓰지 않고 촘촘히 쌓아 올린 돌담을 따라 조성된 마실길, 그 길 따라 펼쳐진 형형색색 벽화와 섬사람들의 푸근함이 묻어나는 아기자기한 오브제들. 관매도는 아름다운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 섬 전체가 볼거리로 가득 차 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작동되는 음향시스템과 친환경 순찰차, 자전거 대여소 등 세심하게 녹아있는 친환경 마인드 또한 돋보인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특산물 톳을 이용한 맛깔스런 음식도 인기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 관매도는 명품마을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명품 섬으로 거듭났다. 거기에 ‘박 2일’의 영향으로 생태체험 관광명소로 각인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매도를 방문하려는 사람들로 진도 팽목항은 여름 휴가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성수기를 이어가고 있다.